미얀마 스님 性범계 숨기고 포교활동 '충격'

아신 빤딧짜 스님 2016년부터 여성 4명과 성관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대표적인 스승 중 한 사람으로 손꼽혀 온 미얀마 출신 아신 빤딧짜 스님이 성 관련 범계로 환속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스님과 관계를 맺은 여성 신도 중 일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될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승려의 범계를 넘어 사회법상 '성범죄'에 해당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승 담마야나 선원 장이기도 한 아신 빤딧짜 스님은 5월 17일경 일부 신도들이 참여한 SNS채팅방에 자신의 범계와 관련해 '참회문'을 게재했고, 6월 15일 공식적으로 선원을 떠난 후 현재까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신 빤딧짜 스님은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와 위빠사나 전통 수행법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스승으로 유명하다. 2012년경 한국에 정착한 후 부산서 미얀마 대학생과 한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리와 수행법을 강의해 왔다. 이후 스님을 따르는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법승 담마야나 선원을 개원, 선원장으로 활동하며 테라와다 불교 수행 포교에 진력했다. 그래서 이번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 사태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本紙가 입수한 담마야나 선원 내부 글과 다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아신 빤딧짜 스님과 관계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수는 4명이다. 이 중 한 여성이 올해 5월경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담마야나 선원 내부에 공개하면서 그간의 범계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피해사실을 밝힌 A씨는 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마야나 선원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SNS채팅방에서 공개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아신 빤딧짜 스님은 A씨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 접근한 뒤 서울선원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접촉을 거부했지만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사실을 밝힌 뒤 승복을 벗고 한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심지어 아신 빤딧짜 스님은 같은 시기 다른 여성신도 C씨와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신 빤딧짜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지 3일 뒤인 5월 17일, SNS채팅방에 '참회문'을 게재하고 범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저의 잘못을 엎드려 참회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참회문에서 스님은 "모두 저의 범계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재가자 신분으로 참회하며 살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참회문이 담마야나 선원 내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공개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부산에 위치한 담마야나선원 본원의 전경. 선원장이었던 아신 빤딧짜 스님은 2016년부터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범계행위를 했지만, 포교활동을 해왔다.

피해자, 올해 5월 피해 사실 공개

5월 17일 범계인정 참회 후 잠적

담마야나측, 2016년 범계도 은폐

서울과 대구선원 폐쇄 등 파장 커

신도, "비구 아님에도 승가 기만"

"종교계 성폭력 전형" 비판 목소리

이후 서울선원은 즉시 폐쇄됐고 현재 대구선원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부산 본원 한 곳만 운영 중이며, 공식 온라인 카페도 문을 닫았다.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행위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도 충격이다. 테라와다 불교에서 승려의 성행위는 빠라지까(바라이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계로, 교단차원의 징계 형태가 아니라 범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승려 자격이 자동 박탈되기 때문이다. 테라와다 교리에 따르면 아신 빤딧짜 스님은 이미 2016년 범계행위 이후 승려의 신분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아신 빤딧짜 스님은 이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교리와 수행법을 강의하고 법문하며 수행자들의 공양과 존경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5권의 책을 출간하며 테라와다 불교 지도자로서 인지도를 넓혔다. 이에 수행자 일각에서는 "아신 빤딧짜 스님이 수년간 신도와 수행자들을 기만하고 속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계율과 교리를 어김으로써 왜곡된 법을 설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개적인 참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 사실이 축소 · 은폐됨에 따라, 미얀마와 한국 불교계에 "아신 빤딧짜 스님이 한국 여성 신도의 유혹에 넘어가 환속했다"는 등의 왜곡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가 높은 이유다.

이에 담마야나 선원에서 수행해 온 신도 및 관계자 40여명은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사실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아신 빤딧짜 스님의 행위는 수행 지도자가 수행지도 과정에서 알게 된 신도의 심리상태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신심과 신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며 "더욱이 그는 2016년 범계 이후 비구가 아님에도 가사를 입고 공양과 삼배를 받았으며 승가 보시금을 개인적 용도(호텔 숙박비용)로 써오는 등 승가를 모독하고 수행자들을 기만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아신 빤딧짜 스님을 한국에서 출국시키고 한국사회와 한국 테라와다 승단에 그 어떤 직 ·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세종시 테라와다 승단 총림 건립불사와 관련해 불사금을 낸 모든 재가수행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할 것 △범계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은폐 · 축소하려는 부산 선원 관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행정적 처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원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주한미얀마 대사관과 미얀마 종교청에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아신 빤딧짜 스님과 신임 주지 아신 빠라구 스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부산본원 관계자 겸 재가이사는 "현재 담마야나 선원은 (아신 빤딧짜 스님의) 제자(문중) 스님들이 왔고, 9월경 (불사와 관련한)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스님의 범계사실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영란 나무여성상담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성직자의 파계이자 성폭력임에도 마치 여성 수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은폐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특히 불교계서 출가자가 가진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인지하더라도 주변인들이 지지와 존경을 표하고 있기에 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 해결도 어렵다"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비구 1명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가리거나 묵인하는 선원 공동체 역시 가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리 직무정지 이후 법화종 향방은?

법원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지속된 종단 내홍에 어떤 변화가 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총무원장 서리의 직무를 정지한 이유에 대해 "승려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서리로서 중앙종회의원들을 징계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 인정해 향후 종단 정상화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은 8월 10일 가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현집행부 등에 새로운 서리 임명 전까지 일상행정 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 집행부 임원 상당수가 자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종단은 8월 14일 원로회의에서 서리 임명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서리 체제 집행부를 중심으로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월 5일 법화종 중앙종회가 제기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은 종헌 · 종법상 승려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종회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법화종 소속 승려가 아니기에 서리로서의 자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승려 자격 없다" 이례적 판결

종회의원 향한 총무원 징계도 '무효'

종정 스님, 8월 10일 서리 해임교시

법원은 또 지난 7월 총무원장 서리 체제의 집행부가 중앙종회의원 5명에 대한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4월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서리 임명 이후, 서리 체제의 총무원이 집행한 직무의 무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최근 주지 임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영 안정사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화종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측의 이의신청 가능성은 낮다.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이 8월 10일 법원의 가처분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총무부장 등 현집행부가 차기 서리 임명 시까지 일상행정 업무를 담당토록 당부했기 때문이다.

차기 서리 임명은 8월 14일 예정된 원로회의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임명될 서리 체제의 집행부는 前 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인 10월 16일까지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무원장 선거준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돼, 법화종을 둘러싼 오랜 혼란이 이번 기회에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종단 정상화에 뜻을 함께하는 종도 스님들과 함께, 이제는 정말 법화종이 바로 서고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서리 선출 차주 상보〉

천태종 첫 '법화예찬대회' 연다

10월 24일 구인사서… 9월 1~30일 신청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 2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회 법화예찬대회'를 개최한다.

법화예찬대회는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 전품을 악곡으로 창작한 '법화광명의 노래'를 널리 전하여 정법포교와 불자들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합창경연대회다. 천태종은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30악곡을 창작하여 2019년 8월 25일 한국불교음악사상 처음으로 1400여 명의 합창단이 국악관현악단, 솔리스트 등과 화음을 이루어 전곡을 공연한 바 있다. '법화광명의 노래'는 묘법연화경 28품과 서곡 회향을 합쳐서 30곡으로 구성된 교성곡이다.

이번 합창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인원 25명 이상(지휘자 및 반주자는 인원에서 제외)의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며, 참가신청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대회카페(https://cafe.naver.com/thelotussutra)에서 참가신청서(본 대회 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1매)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합창단 소개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e-mail접수, FAX접수(당일 원본 제출) 등이며 접수처는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교육부(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교육부)이다. 이메일은 7315edu@naver.com, 전화 (043)420-7315, 7318. FAX (043)420-7399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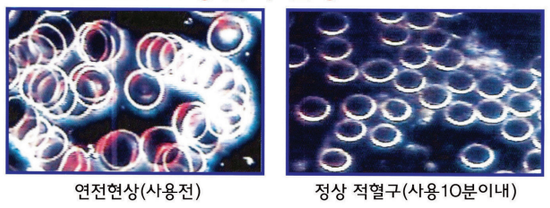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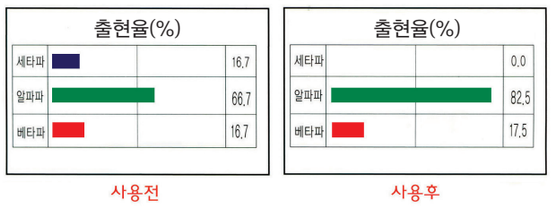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11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구강 건강~